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은 우리나라 정치·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정작 대상지역인 목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남 평균 4.21%에도 못 미치는 2.57% 상승에 그쳤다. 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목포시 만호동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별주택가 공시...목포 '손혜원 효과' 없었다

전국 6.97·광주 8.37·전남 4.21% 상승...전년비 0.33%p ↑
담양 6.68·장성군 6.48% 최고 상승 지역...목포 2.57% 그쳐

목포지역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손혜원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은 2.57% 상승, 전남 평균 4.21%에 크게 못 미쳤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남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과, 지난해보다 4.21% 상승했다. 전년 3.88%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40만1542호로, 전년 39만9186호보다 2356호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6.68%)과 장성군(6.48%)이 6% 이상 크게 올랐다. 이들 지역은 전년도에도 각각 5.92%, 5.52% 올라 주택가격 2년 연속 최고 상승 지역으로 꼽혔다. 지리적 위치가 광주와 인접해 '대도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첨단

지구와 담양·장성이 연계된 첨단복합단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여수시(5.88%), 나주시(5.75%), 화순군(5.30%), 순천시(5.29%), 무안군(5.15%) 등이 5%대 상승했다. 함평군(4.51%), 장흥군(4.42%), 신안군(4.38%), 구례군(4.32%) 등은 전남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진군은 2.27% 오르는데 그쳐 가격 변동 폭이 가장 작았다. 이어 영암군(2.47%), 영광군(2.49%), 목포시(2.57%), 보성군(2.69%) 등은 3% 미만 상승에 그쳤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목포지역 개별주택가격은 2.5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목포에 '손혜원 효과'는 없

었다는 의미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은 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57% 상승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9만8703호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2606호(0.6%), 6억원 초과 주택은 233호(0.06%)였다.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지난해 175호에서 233호로 58호(33.1%) 늘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고가주택 증가가 눈에 띄었다. 여수는 지난해 125호에서 올해 142호로 13.6% 증가했고, 30호에 그쳤던 순천시는 80% 늘어 54호가 됐다. 전남지역 최고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선원동 85억9000만원이었고, 최저 주택은 진도군 조도면 64만3000원이었다. 광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8.37% 상승했다. 구별로는 남구가 10.4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동구 9.95%, 광산구 9.19%, 서구 7.34%, 북구 6.66% 순이었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상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예정지역 개발 기대감 등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 7086호로 전체 92.6%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5719호(6.9%), 6억원 초과 주택은 451호(0.5%)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매매가 5주 연속 하락세

전남 0.04% 상승...전국서 대전과 함께 두 곳만 상승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0.04% 하락해 지난주(-0.02%) 대비 하

락 폭을 키웠다. 올해 남구 봉선동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광주 아파트값도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0.02, -0.02, -0.04, -0.02, -0.02, -0.04)했다.

반면,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상승세를 보인 곳은 대전(0.02%)과 함께 두 곳뿐이며, 상승률은 대전보다 컸다. 지역별로는 광양시(+0.18%)는 직장과 주거지역이 근접한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순천시(+0.08%)는

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목포(-0.02%)·여수시(-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번 주 광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은 줄었으나 0.03% 떨어졌다. 전세가는 4월 두 번째 주 2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전남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라 지난 주(0.01)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특히 전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8주 연속 상승, 두 달 새 1.27% 올랐다. /박정욱 기자 jwpark@

증간소음 저감 제품 무더기 인증 취소

국토부, 비공인 시험기관 고발

국토교통부가 증간소음 저감 제품 불량품에 대해 무더기 인증 취소했다. 이는 감사원이 현행 증간소음 저감제도를 '충체적 부실'로 평가한데 따른 시정조치다. 국토부는 부정하게 발급된 인증서를 받은 8개 제품(바닥충격을 차단 바닥구조)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 인증서를 받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제품들이다. 인증 취소 제품이 이미 사용됐거나 시공 중인 LH 주택공사 12개 단지의 경우,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토부는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공장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인증 취소하거나 인증서를 고쳐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완충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시험기관 8곳을 지난달 일제 점검·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된 품질시험성적서 거짓 발급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자격없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내준 비공인시험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증간소음 차단 수준, 일반적 소음발생원인, 통상적 시공 편차, 사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제도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뉴문뉴스테이 조합원 분양 마감...사업 속도



잔여 세대 임대로 전환

중산층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광주 '뉴문동 뉴스테이'가 조합원 분양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2일 북구 뉴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뉴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6층 13개동 3096세대 규모의 '북구 뉴문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주목받았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 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발전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조합 측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쳤다. 조합원 분양 외 잔여 세대는 전량 임대로 전환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중산층 집값 안정을 위해 조합

원 분양 외 잔여세대 전량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8년 임대 후 분양하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게 장점이다. 미분양 위험이 제거돼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조합 측은 조합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8월께 조합원 총회(분양신청 조합원만 해당)와 행정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3096세대(아파트 2850세대, 오피스텔 246세대)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한양이 시공을 맡는다. 전체 공사 금액은 약 55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지역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인근으로 양동시장역과 금남로5가역의 더블역세권이며, 롯데백화점과 양동시장 등이 가깝다. 수창초·북성중·광주제일고 등 연계교육을 할 수 있는 등 교육 여건도 좋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